

# 청소년 상호이해와 협동정신 함양

##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제3회 국토순례 이동야영대회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연맹장 김종하)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포천에서 관인까지 제3회 국토순례 이동야영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상호이해와 협동정신 함양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5일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20분 삼성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영식을 갖고 출발하여 참수삼거리와 참수면사무소-오산삼거리-중리초등학교까지 순례에 나섰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중리초등학교를 출발해 초과삼거리를 통해 관인중학교에 도착하여 대영화제를 실시하고 3일째인 27일에는 한탄강 래프팅후 해산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토순례 이동야영대회는 나라사랑의 국가관을 고취하고 도보이음을 통해 체력 향상 및 극기의 고난에 도전하며 래프팅을 통해 수상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의식을 심화하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포천에서 관인까지 제3회 국토순례 이동야영대회를 개최했다.

며 상호이해와 협동정신을 함양하며 우애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애와 협동”이란 주제로 실시한 이번 야영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김영석 기획조정부장(동남고 교사)은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을 통해 보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를 성취하기 노력하는 계기 마련은 물론 참가 학생들간의

우애와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대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성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통한 자아발견

## 2005 포천시·연천군 딸들의 캠프

포천시와 연천군의 여중생들이 올바른 성의 이해와 자아를 찾기 위한 숙제를 안고 모였다.

포천시청소년상담센터(소장 김영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영북면 한화콘도에서 포천시와 연천군 여중생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5 딸들의 캠프를 개최했다.

포천시와 연천군이 공동주최하고 포천시청소년상담센터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성교육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기본으로 집단활동, 심상훈련, 협동 따라잡기, 조별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이예경 교수의 성교육 등이 실시됐다.

10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합숙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성교육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기본으로 집단활동, 심상훈련, 협동 따라잡기, 조별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이예경 교수의 성교육 등이 실시됐다. 포천시청소년상담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교



포천시청소년상담센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영북면 한화콘도에서 포천시와 연천군 여중생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5 딸들의 캠프를 개최했다.

여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 능력 등 자아를 재발견하고 자아존중 및 자기효능감 향상 ▶심상훈련을 통한 자기통제능력 함양 및 잠재력 개발, 공동체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청소년

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 상담교사 15명의 자원봉사로 더욱 의미 있는 캠프였다”고 덧붙였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아빠 어렸을 적에(34)

### 레슬링 전성시대

교실에서 여자아이들은 두 사람이 손뼉을 마주치며 세세체 놀이를 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비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뚝대도 아니 달고 사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 선생님 계절적에, 열서 한 장 썬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구리 구리 구리 구리.”

손을 마주 잡아 지붕을 세우고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진 사람을 엎드리고 손가락 다섯 개중 한 개를 짚어 알아맞추는 놀이입니다.

“메리 메리 메리뽕, 하와이로 갈까요, 우리 우리 우리는, 주먹 뽕, 가위뽕, 보자기뽕.”

그렇게 하며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그래서 진 사람을 ‘우리 형아리’라고 소리치며 간질이는 놀이입니다.

‘사치기 사치기 사빠뽕’은 여러 사람이 빙 둘러앉아 ‘사치기 사치기 사빠뽕’을 외우며 옆의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하다 틀린 사람은 노래나 장기 자랑을 해야 합니다.

“곰발바닥 개발바닥, 개발바닥 말발바닥, 말발바닥 소발바닥...”

하는 식의 끝말잇기 놀이도 재미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책상을 앞으로 몰아놓고 레슬링이 한 판 벌어집니다.

동네에 한두 대밖에 없는 텔레비전에서 역도산, 김일, 장영철, 천규덕 등이 나와 박치기, 알밤까기, 헤드록, 드롭킥, 코브라 트위스트, 십자 굴리기 등의 기술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교실의 마룻바닥에 분필로 링을 긋고 두 명씩 편을 짜 태그매치로 레슬링을 합니다.

기증은 덩치가 커 힘이 세지만 심재 시는 푸듯간 아들 상진이는

키가 조그만해도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힘이 대단합니다. 선생님은 내일 단계로 학교 옆에 있는 군인극장으로 학생입장 환영 영화 관람을 간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려고 동네 마을회관 앞에 모였습시다.

학교가 떨어져서 모두 회관 앞에 모여 일학년부터 육학년까지 모두 한 줄로 서서 학교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면 좋아요. “야, 너 오늘 영화 보냐?” 친구가 물었습시다.

영화비가 20원인데 그만 깜빡하고 엄마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 뭐예요.

나는 가방을 친구에게 맡기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오늘 학교에서 영화 본데요.”

“에이, 이 녀석아! 갑자기 묻어 어디 있어. 잠깐 기다려 봐!”

엄마는 밥을 잡숫다 마시고 군인가족 집인 두석이네와 상회네로 달려갑니다. 농사꾼의 집은 단돈 십 원도 현금이 없거든요. 군인가족은 그 래도 매월 월급을 타서 생활을 하니...

“옛다, 이십 원!” 잠시 기다리고 있으려니 엄마

## 김순진의 연재 수필



###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는 숨을 헐떡이시며 이십 원을 꾸어 오셨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극장에 들어 갔습시다.

오늘 영화는 ‘박치기 왕 김일’이란 영화입니다.

극장 안 스크린에서는 김 일이 나와 외국의 덩치 큰 사람한테 반칙을 무던히도 당합니다.

그 미국사람은 팬티에 뽀족한 흥기를 가지고 나와 심판 몰래 김일 선수를 찌르네요.

미국 선수와 일본 선수에게 갖은 반칙과 흥기로 당할 대로 당하여 우리들의 가슴이 메이졌습시다.

(계속)

## “실천하는 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을”

### 청소년 자원봉사실천학교 개강



포천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6일 개강한 '2005 청소년 자원봉사 실천학교'에서 대학생자원봉사자인 실천학교 지도자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선단동 푸른연덕(구 신한연수원)에서 매주 화·목요일 총 4회에 걸쳐 '2005 청소년 자원봉사 실천학교'를 개설했다.

자원봉사의 이론적 교육과 체험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책임의식 및 실천방안을 유도해 자원봉사활동의 계기마련과 지역사회

의 훌륭한 리더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실천학교는 관내 포천, 영중, 포천여자, 경북, 갈월, 동남중학교 등 중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천학교는 매주 개강식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 기본지식, 기초지식, 특성 등 이론교육과 장애인교육 및 장애체험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이번 실천학교는 포천시자

원봉사센터의 주관아래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이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지도자들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등을 하고 있어 포천시 자원봉사교육의 새로운 실험무대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식당흡연석 칸막이로 완전분리해야

이르면 내년 초부터 PC방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장,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분위기 확산과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돼 있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금연석도 간접 흡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 칸막이를 통해 완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전체 공간의 5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PC방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꽃샘벌꿀은 맑은 새벽이슬의 꽃향기를 정성껏 담은 자연그대로의 고농도 순수한 벌꿀입니다.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 담은 꽃샘종합 선물세트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 (주)꽃샘종합식품 대표이사 : 이상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대) FAX.031)541-9933  
소비자상담실 : 031)541-9922

